

[목회자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2018년 3월 30일 이현래 목사님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의 범위는 아주 넓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알고 보면 다 복음이다.

기독교에서 특별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범위는 넓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혜택이 전부 예수 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결정적인 복음이 된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완전히 집약된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된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다. 지금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속에 집약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알면 다 아는 것이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약된 존재이다. 옛 사람 인간의 모든 것은 아담 안에 모두 집약되어 있다. 아담 한 사람을 알면 인류를 다 아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한 사람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것을 알면 복음은 아주 단순해진다. 단순한 복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이 복잡해지면 안 된다. 예수 한 사람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을 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복음을 함축한 결론이고 엑기스이다.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셈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어떤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놀랐다.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이목사님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나는 쉽게 말했다.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좀 다르다고만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를 알기는 무슨 예수를 아느냐고 했다.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예수는 뻔하다. 기독교에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서양사람들은 자기들대로 이미 예수를 다 알고 있다. 예수를 더 알 필요는 없고, 어떻게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서구 기독교의 과제이지 예수를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은 전혀 과제가 될 수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는 다 알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살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예수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살아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분을 어디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가령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데서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는가? 경배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이 아니니까.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라고 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거기서 일생을 산다.

병 고치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저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구나. 거기서 예수를 만난다. 그 사람은 평생 병 고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역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라.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마지막에 가면 병 고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재미가 없다가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다.

예수를 만난 것만큼 산다. 사역도 예수를 만난 것만큼 사역한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사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달라진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를 만났으면 그 지점에서 산다. 평생 그렇게 산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산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만큼 살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사역도 달라진다. 우리의 삶도 달라지니까 사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예수를 재조성할 수 없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내가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분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사탄이 속였다.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은 네가 선악을 알게 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악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된다.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 산다.

누구든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를 선포하면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이 자리에 산다. 그러면 그것은 위대한 종교가 된다. 놀라운 종교가 된다.

이런 일은 세상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석가모니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니 꼭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유일성!

왜 그분이 꼭 유일하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예수인가?

옛날에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닌 일이 있다. 증산도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왜 우리가 민족종교가 있는데 외래종교를 믿느냐는 것이다. 이 젊은 학생들이 민족 애국심에 따라서 거기를 들어간다. 기독교 비슷한 것이 많다.

지금 원불교를 보면 옛날 불교와 많이 다르다. 기독교를 본받아서 포교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0계명이 있다. 이것은 이백 몇 십개에 해당되는 계율을 어떻게 평신도들이 다 지키겠는가? 거기서 10가지를 골라서 꼭 지킬 것만 지키자고 나왔다. 사람들이 얼른 들으면 쉽다. 10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다. 쉬우니까.

모슬렘 같은 것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코란을 읽어보면 내용이 정말 시시하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코란이라고 하고 있다. 왜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완전

히 나라를 다 점령하는가? 너무 쉽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한다는 것은 너무 쉽다. 그리고 1년에 1~2번인가 몇 번 코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있다. 이것이 끝이다. 다른 것이 없다. 누구나 믿기가 쉽다.

캐톨릭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라 가겠는가? 사제들은 전적으로 따라 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쉬운 의식에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의식이 발달했다. 이해하기가 쉽다. 기도하려면 상당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참여하도록 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다. 미사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떡 놓고 잔 받으면 끝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먹었다는 것이다. 지루하고 설교 듣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설교마다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무릎 꿇고 받아먹으면 된다.

그것도 초기에는 잔도 주었는데, 잔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잔은 생략하고 떡만 준다고 한다. 그것도 무릎 꿇고 일일이 입을 벌리면 사제가 입에 넣어 주었는데, 그것도 번거롭다고 해서 사제가 기도하고 그냥 주면 손으로 받아서 자기가 입에 넣어서 먹는다. 더 쉽다. 점점 쉬워야 된다. 점점 어려워지면 사람이 오지 않고 다 떨어진다.

복음도 점점 쉬워져야 된다. 쉬워지려면 집약되어 있어야 한다. 그냥 쉽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쉬워지려면 근원을 알아야 쉬워진다.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는데 복잡하다. 이혼을 하려고 왔는데 들어보면 정말 그럴 듯하다. 정말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아보면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되었다. 밥 먹다가 시작되었거나 잠 자다가 시작되었다.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되어서 말로 결국 하다 보니까 계속 커져서 결국은 법정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린다. 도저히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에 가고 목사에게 오고 신부한테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근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식은 밥 주었다가 이렇게 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불만이 생기면 점점 퍼진다. 점점 퍼지다 보면 끝없이 퍼져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고 지금 현재만 알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만다.

지금 인류도 그런 것 같다. 계속 발전한다고 확대가 되었는데,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과학도 융합이라는 말이 나온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 서로 멀어진 것이다. 이것을 융합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서

융합인재교육을 한다.

전남대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융합인재교육센터를 하고 있다. 학문도 과학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인문학도 같이 해야지 과학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움직임이 붙어지고 있다. 너무 퍼져버리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서로 모른다. 마치 씨족이 두 사람에게서 퍼졌는데 수천명이 되어버리면 씨족인지 아닌지 모른다. 부족끼리 살 때와는 다르게 그런 식이 되고 만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도 긴 역사가 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모른다. 근원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 이렇게 하자.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산 혼이 된 아담을 동산에 두고 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경작하라는 뜻이다. 말 몇 마디 되지 않고 간단하고 단순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거기서 그것을 먹고 쫓겨났다. 왜 쫓겨났는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했다.

이 원죄는 세상이 모르는 죄다. 자기가 위치를 이탈했다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모른다. 어디가 정 위치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니까 또 그 죄를 모른다.

결국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밖에는 모르니까 그것을 평생 회개해도 그 회개가 끝나지 않는다. 인간에게 도덕적인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문제도 항상 있는 것이지 한 번 회개했다고 영원히 끝나 버리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평생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 받은 죄인이라는 묘한 말이 나온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이다. 언제 없어질 것인가? 내세에 육신을 벗으면, 그렇게 해답이 되었다. 이것은 해답이 아니다. 구원 받은 죄인~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고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이다. 이것도 해답이 아니다. 여겨만 준다고 해답이 되겠는가? 똥을 덮어둔다고 그 냄새가 어디 가겠는가? 불쌍하니까 덮어준다는 것이다.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여기지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해답이 안 된다.

의롭다 함을 받아서 에덴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에덴동산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의로워야 사는 것이지 의롭다 함을 받아서는 살기 어렵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한계가 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때 분명히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다. 이것이 의롭다 함의 기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후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의롭다 함을 받아서 자기는 의롭다 함을 받은 상태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산된 것은 이스마엘이다.

그 후로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00살이 된다. 그때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삭을 막상 낳을 때는 믿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믿음이 없었다. 사라도 아무 믿음이 없었다. 거기에는 믿음도 소용이 없는 자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 보았자 우리 믿음은 네 몸에서 낳은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 안에서 그 정도의 믿음이 가능하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 믿음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은 아들이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자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도 전제가 붙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제가 꼭 붙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받은 선물이다. 그 믿음은 은혜로 인한 선물일 뿐이지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용이 있는가? 100살이 되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다고 한다. 믿음의 한계는 이스마엘을 낳는 데까지이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낳을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이다. 종을

후사로 삼지 않고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는 것밖에 안 된다. 이삭은 거기서 낳은 것이 아니고, 100살에 믿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부활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죽은 다음에 온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 속에 영이 있고 껍데기만 죽고 속은 죽지 않은 것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속에는 살아있었는데 겉만 죽은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것이 아니다. 부활은 완전하게 다른 것이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옛 생명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한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은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죽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으로는 안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만일 동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동산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동산에 거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다. 그것이 천국이기도 하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살면 그것이 전부다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동산에 살자고 가는 것이다. 동산을 나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근본에서 이탈되었다. 에덴동산이라는 거기서 쫓겨난 것이고, 그 이전에 사람의 위치에서 이탈된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 종교적인 노력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위치가 바르게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큰 수십만톤짜리 배가 움직여 가는 것을 보면 끝물에 있는 조그마한 키가 그 배를 움직여 간다. 방향을 틀어 간다. 우리가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끝에 가서 얼마나 커지는지 모른다.

호남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조선대학교를 지을 때 보았다. 말이 굉장히 많았다. 그때 당시 철근도 없는데 완전히 붉은 벽돌로 지은 집이다. 7층을 지어놓으니까

말이 많았다. 각도 틀어졌느니 5도가 틀어졌느니 3도가 틀어졌느니 이런 말이 많았다. 밑에서 1도가 틀어졌으면 100m를 올라가면 몇 도가 틀어졌겠는가? 넘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넘어지지 않고 있다. 광주의 명물로 남아있다. 벽돌을 쌓은 것을 보았는데, 벽이나 기둥을 쌓을 때 보니까 꽤 넓다. 위에서 사람이 뛰어 놀아도 될 만큼 넓다. 철근이 없으니까 집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지어놓은 집이 조선대 학교 건물이다. 광주에 가면 어디서 보아도 다 보인다.

근본에서 이탈하면 올라가면 당연히 넘어져 버린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일이 아주 작은 일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선악을 아는 일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 거기서 오만 일이 다 발생한다.

왜 연애하고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가? 다 그것 때문이다. 7년 간 연애하여 결혼했는데 7개월 살고 헤어진 사람이 있다. 대구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7년 연애를 했는데 7개월 만에 헤어졌다.

근원이 무엇인가? 간단한 것이다.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이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에서 이탈되었으니까 근원에서 이탈된 데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주 쉽게 되어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부르심이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은 이탈된 사람을 불러 온 것이다. 있는 자리에서 고친 것이 아니고, 바벨까지 가버렸으니까 거기서 사람을 불러 낸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조상이 되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불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갔다. 이 말을 하면 지금 누가 응할 것인가? ‘예, 가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시오, 당신의 모든 인생관을 접고 나를 따르시오, 라고 하면 누가 과연 따르겠는가?

잘사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누가 따라 가는가?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따라 간다. 그나마도 부르심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던 자가 따라 온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았자 듣지 않는다. 잘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개발한 방법이

지옥 간다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는가? 불이 펄펄 끓는 곳이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런 것을 정상적인 전도라고 할 수 없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계통의 사람들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내세웠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곳이 '게헨나'라는 곳으로 옛날에 쓰레기 버리던 곳이었다.

나는 어려서 게헨나를 봤다. 동네와 동네 사이에 돌무더기를 놓은 곳이 있었다. 거기에 오만 것을 버렸다. 돼지새끼도 죽으면 버리고 고양이 죽은 것도 버렸던 곳이다. 그때 학교를 가려면 그 곳을 통과해서 가야 했다. 거기를 통과하려면 냄새가 하도 나니까 코를 막고 가곤 했다.

지금 보니까 그곳이 게헨나였다. 또 어떤 것은 갖다 놓고 불을 지르곤 했다. 그래서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도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을 보고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게헨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다. 결국 지옥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것이다. 쓸모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니까 고통으로 설명한 것이다. 성경에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지옥인 것이다. 쓸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으면 집안에 있을 것인데 못쓰게 되니까 버리게 된 것이다. 버려진 것이 지옥이다.

버려진 것이 별거나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 귀중한 것이 쓸모가 없어서 버려졌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까운가. 제주에 있는 박**장로가 고물상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10년을 왔다갔다하면서 봤다. 고물상에는 이것을 왜 버렸나 싶을 정도로 아까운 것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쓸모 없으니까 버려진 것이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쓸모 없으면 버려진다. 구리가 비싸다. 검은 케이블이 롤에 둘러져서 고물로 나오는데 굉장히 비싼 것이다. 그런데 공사하다가 남아서 쓸모가 없어서 고물상에 판 것이다.

고물상에서는 그 귀중한 케이블을 도막도막 잘라서 피복 벗기는 기계에 넣으면 구리만 나온다. 그것을 모아서 용광로에 다시 들어간다. 너무 아깝지만 다시 쓸

모 있게 만들려니까 용광로에 넣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아주 알팍한 수작이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이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은 누구인가? 소망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따라왔다. 나 같은 사람이다. 나는 나오라고 해서 즉시 나왔다. 왜냐하면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굉장히 망설이는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서 준비해 놓으셨고 나는 지체 없이 갔다. 왜냐하면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 때의 나는 좀처럼 결정을 잘 못한다.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뭘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빨리 결정도 안 해주고 해서 아주 답답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은 내가 결정을 잘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없이 갔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은 좋은 곳이고 내가 네게 지시할 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모른다. 이것을 듣고 누가 나가겠는가?

조선말기 개회시기에 개화에 앞장선 사람들은 모두 못살았던 사람들이다. 양반집 잘사는 집 이런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명문가 출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때 제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 갔다 와서 출세했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없다.

야곱과 모세도 다 마찬가지였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그런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지 넉넉하게 여유 있는 곳에서 부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겠냐는 것이다.

갈 데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인데 여유가 있는 사람, 만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누가 다 깨닫고 선뜻 나서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천국에는 뒤에 간 사람이 먼저 가고 먼저 간 사람이 나중 간다고 했다. 유태인들은 왜 못 따라왔는가?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좋고 전통이 좋고 종교가 좋고 그

런 것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보다 나은 어떤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예수가 그보다 나은 것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안 갔던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가 자기들을 모독한다고 해서 죽었다.

그들은 ‘모세는 광야에서 이러저러했는데 너는 뭘 해주겠냐?’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예수 보다 훨씬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예수를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생각해보면 긴 과정을 지났다.

지금 우리는 아주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태어났더라면 감당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브라함만 불렀겠는가? 많은 사람을 부르고 싶었지만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브라함만 왔던 것이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 나온 것이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따라왔다. 그것도 밤새도록 배를 몰았지만 고리를 잡지 못했던 그런 사람, 빈 그물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아주 긴 과정을 겪어서 온 것이다. 소망 없는 사람들, 극히 소망 없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해서 가보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갔던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된 그런 것을 보면 그때서야 그런 것을 따라 나온다. 요즘에는 교회에 가기가 쉬워졌다. 기독교 인구도 많아졌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가고 한다.

옛날에는 성경에 옆에 끼고 교회에 가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성경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야지 왜 성경책을 숨기고 다니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랬다.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당당하게 들고 다닌다. 그만큼 기독교가 보편화되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과정들을 보면 아주 길고도 먼 길이였다. 모세 다윗 다 그랬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그렇다. 다섯 명의 여자들이 나온다. 그 여자들이 물꼬를 돌려서 예수께로 오게 되었다.

알고 보면 다른 길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올 때까지 제대로 된 여자들이 아니었다. 기생

라합, 이방인 롯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다윗 이후도 마찬가지다.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 해서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다.

울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 이 과정은 굉장히 길고도 험한 그런 과정이었다.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 종착역에 온 계시, 이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TV가 발견될 그때는 그것이 아주 고도의 기술이었다. 미국이 자랑하는 고도의 기술이 TV 발명이다. 미국 국회 의사당에 가보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 상이 있는데 다른 유명한 대통령들 맨 앞에 그 사람이 동상으로 서 있다.

미국이 그 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술자다.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다. 그것을 일본에서 가져다가 상품화해서 돈은 일본에서 더 많이 벌었다. 그래도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TV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 왔는가?

컴퓨터도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전시해 놓았다. 방 하나에 무슨 기계가 가득 들어 있다. 그것이 원래 만들었던 컴퓨터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해 성능이 1/100 도 못 된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온 방에 한 덩어리 기계인데 그것이 꼭 차 있다. 그것이 줄어지고 줄어지고 줄어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된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다.

오늘 우리에게 온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쉬워진다. 과정을 안 거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고생시켜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신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고생시켜야 한다. 우리가 만일 먼저 고생을 겪는다면, 우리가 과정을 겪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쉬운 것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종착역이라고 감히 말하는 데 이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종착역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종착역의 계시다.

여기에 오면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이런 때처럼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아주 단순화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주 단순하다. 농부와 포도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간단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다. 너무 쉽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야곱은 20년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것도 아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그런다. 내 나이 130에 험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 험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기만 하면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말이다.

그 날이 언제인가? <예수 안에>가 아닌가? 그 날이 먼 미래가 아니고 예수 안이 그 날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말했다. 요한복음 15장 14,15,16절로 가면 전부 이 말이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있다고 하겠는가? 이것도 잘못 들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떡을 먹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천주교인들은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성체를 먹는 것이라고 한다. 성체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못 믿으니까 기념설이다.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한다고 별 수가 나오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되는가? 안 된다. 떡은 먹었으니까 나와 하나 된다.

차라리 천주교인들은 떡 조각이라도 먹으니까 그 떡 조각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진다면 내 안에 떡 조각이 들어왔다. 그러니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화체설이다. 내 몸에 와서 변화되었다. 떡과 잔, 이것을 믿는다는 것도 보통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떡과 잔, 이것이 정말로 살과 피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

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이다. 떡 조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몸 속에 들어왔다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정신병자다.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놀라운 믿음이다. 먹기는 쉬운데 그것이 실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또 기도하시면서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떡을 주었다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주었다는 곳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보면 말씀과 떡이 하나라는 말이다.

떡을 준 것이나 말씀을 준 것이나 같이 동격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살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렵다. 어떤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몸이었는가?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였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난감한 일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되게 되게 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소원은 자신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최후의 갈망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아직 없지만 그것이 최후의 갈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이 최후의 갈망에 참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것에는 참여가 되더라도 이 마지막 갈망에 참여 되지 않으면 참여 되지 않은 것이다.

사랑도 예수님만 사랑이 있는가? 부처님도 사랑이 있다. 좋은 경제적인 미덕들, 도덕적인 미덕들이 예수님에게만 있는가? 다른 곳에도 많다. 내게 주신 자도 나의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분과 하나가 안 되면 모든 것이 허사다. 아무리 우리가 그의 말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하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하나가 안 되면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고 만다. 더 이상이 될 수가 없다.

바울 서신의 요점, 또 바울 서신의 모든 약속은 <In Christ>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에서가 아닌 약속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했던 약속이 전부 그리스도 안이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아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차원이 아주 다른 문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예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의로움도 되고 지혜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전에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쓰여 있다. 가령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엇을 받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 보상을 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그런 버릇이 남아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대급부, 보상으로 무엇을 준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했다. 물론 해주는 것도 있다.

그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어떻게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문서에 써 주겠는가? 어디에 새겨 주겠는가? 어떻게 해주겠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어서 되는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것이다.

얻어진 결과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니 이것은 따로 떼 줄 수 없다. 그분 자신이 나와 하나일 때만 가능한 일이지 따로 줄 수 없다. 구속을 어떻게 따로 주며 지혜를 어떻게 따로 주겠는가? 지식은 따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교수와 제자는 다르게 된다. 왜냐하면 교수에게 지식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교수에게 받았으면 그만이고 그 교수가 없어도 된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돈을 100만원을 받았다면 내가 돈을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이나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말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예수님보고 가서 구속을 가르치고

의로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겠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분 자신이다.

어떻게 내가 그분과 연합을 하는가? 결국 알고 보면 이 문제이다. 그분과 내가 연합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교리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는가?

C.C.C.에 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더라. 믿음으로 영접하는데 나는 그것이 잘 안 되었다. 영접한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영접했는데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느냐 하면 없다.

여러분이 4영리를 보면 의자를 놓고 사람의 마음속에 의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앉힌다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앉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꼭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하루 종일 예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그것도 여러 날은 못하고 하루만.

그런데 나는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못한다. 하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하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못한다. 저녁에 와보니까 완전히 다 헛일이 되어 버렸다. 시장바닥을 돌아다니다 보니 완전히 다 헛일이 되어버리고 예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잘 안되더라.

그 뒤로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를 실험했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초인종을 자기 작업장에 놓고 매시간 초인종을 울리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3년을 해도 효과가 나지 않더라는 것이다. 3년을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안 되더라는 것이다.

그 사람도 나나 마찬가지로이다. 하루만이라도 오로지 예수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부럽고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 부럽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뿐이다. 로마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바울의 답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와 함께 죽었으며 언제 그와 함께 살았었는가? 나는 그와 함께 죽은 일이 없다. 죽지도 못한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내가 왜 자꾸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다른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뛰어내리지 못한 그분만 나와 관계가 된다. 그분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인 거기는 나는 없다. 그 예수 안에는 나는 없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예수 안에 나는 없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 안에 나는 없다.

나는 예수와 함께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지 못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못했다. 나는 거기 없는 사람이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와~ 놀랍다. 우리와 다르다. 인생과 다르다. 그래서 종교적인 경배를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십자가에서밖에 없다. 거기서 밖에 나를 볼 수가 없다. 내 꼬라지를 볼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보여야 된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인 데서 이 사람이 보인 것은 나와 영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나라면 그 사람이 과연 창세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했겠는가?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부활한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유일하게 한 자리밖에 없다. 유일하게 예수와 내가 연합된 자리,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는 그 한자리 밖에 없다. 다른 데서는 내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와 연합하는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리라. 그와 연합하여 살게 된 자리가 부활의

자리이다. 이 <본받아>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같은 이다.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 연합 에서 연합이 되었으면 다 <본받아>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가?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같이 그런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 인생, 그것밖에 없다.

나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그것밖에는 찾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되면 모든 만민이 참여가 된다. 어떤 사람이라도 참여 안 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이 자리가 아니겠는가. 예수와 연합할 자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복음이 만방에 다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믿음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순종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다. 헌신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해도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자리이니까 완전한 복음이 못 된다.

그런데 예수와 연합, 이것이 온전케 되는 일이라면 복음이 온전케 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연합이 되므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나는 석가모니도 도통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가? 안 된다. 예수님이 위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와 하나 될 수는 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행동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과 하나 될 수는 있다. 그런데 나는 그분과 하나 되면서 모든 부족함이 없어졌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안 될 것도 없고, 이렇게 완전하고 평안한 자리가 없다.

이제 나는 이런 삶으로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새 생명이다.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죽었는데 다시 산 것이다. 분명히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됐는데 죽음 안에 발견된 나로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살아내는 것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던 그 사람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산 사람이다. 잘 되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이 막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또 한 것이다. 강력한 반론이 들어왔다.

감사합니다.